

# 教養教育課程에 대한 所見

金 鎮 萬

(高麗大 教授)

## I.

교양교육은 1946년 미군정하에서 미국식 대학의 모형을 따라 국립서울대학교가 편성되면서부터 논의되고, 실시되어 온 오랜 연구과제이다. 그동안 교양교육의 실을 거두기 위해서 거의 대부분의 綜合大學에 일학년 학생들을 따로 떼어 교육·관리하는 교양과정부 또는 교양학부가 설치된 일이 있고, 實驗大學 개혁이 시작되면서 다시 학과 또는 系列中心의 4년 연속학제로 환원되어 오늘에 이르렀다. 근년에 와서는 학생모집이 系列別로부터 學科別로 완전히 선회하는 경향이 두드러지게 나타났다. 대학 신입생을 따로 다루는 교육행정기구의 존재, 학생모집의 패턴의 변천, 교양과목을 전담하는 교수요원 조직의 존재 등은 모두 교양교육의 커리큘럼 운영에 큰 영향을 미치게 마련이다.

해방 후 오늘날까지 모든 4년제 대학에서 시도되고 실시되어 온 교양교육의 변모를 회고할 때, 교양교육이나 대학의 관리에 종사해 온 사람들과 일반 교직원들이 의식, 무의식간에 꾸준하게 집착해 온 관념 중의 하나는, 교양교육이란 教育法의 요구를 충족하는 범위 내에서 대학 일학년 학생들에게 과하는 非專攻 必須科目이라고 하는 것이다. 여기에는 國史, 倫理, 體育, 教練 등과 같은 소위 法定·政策科目이 있고,

國語와 제 1, 제 2 外國語가 있고, 人文, 社會, 自然의 세 가지 큰 分野의 入門을 고루 거치는 소위 均衡教養科目이 포함된다. 대학에 따라 이와 같은 과목에 배당되는 週常時間數 또는 學點數에 차이가 있고, 實驗大學의 취지와 專攻科目을 개설하는 편의에 따라 교양과목 일부를 2, 3 차학년에서 취득하도록 하는 예가 있을 수 있었다. 그러나 교양과목은 일학년 학생들을 위한 의무과목이고, 교양과목을 이수한 다음에 비로소 專攻을 시작한다는 관념과 이해는 해방 후 오늘날까지 변치 않고 고집되어 온 고정관념임에 틀림없다. 그리고 앞에서 언급한 것 같이 교양교육의 과목을 정하는 궁극적인 기준은 教育法의 해당 조항이었다는데 큰 異論이 없을 것이다.

이와 같은 고정관념은 분명히 시대착오적인 것이고 하루 속히 청산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교양교육의 내용, 따라서 교양교육과정은 세계 속의 한국과 한국의 대학이 처한 현실과 우리가 예견, 예측할 수 있는 나라와 대학의 미래에 비추어 정의되고, 설정되고, 또 끊임없이 수정·개혁되어야 할 문제이다. 教育法의 규정은 최소 요건일 뿐 그것을 기계적으로 충족해서 교양교육이 이루어지는 것은 아니다. 무엇보다도 교양교육의 내용은 그것을 마치고 이수하는 專攻履修의 준비단계로, 또는 高校와 大學을 잇는 과도과정으로 이해될 것이 아니라 大學의 전체적

교육목표에 비추어 설정되고 실시되어야 할 성질의 것이다.

## Ⅱ.

교양교육 과정을 포함한 대학교육과정을 정하고 운영할 때, 학생과 교수들로부터 나오는 몇 가지 부정적 반응이 있다. 그것은 대략 다음과 같은 것이다.

1. 교양과정은 물론 70년대(이 시기는 實驗大學 개혁이 추진되면 시기와 부합한다)의 대학과정이 지나치게 專門性을 排除한 넓은 의미의 일반 교양과정이어야 되었고, 이것은 대학교육의 일반적 타락 또는 質的 低下를 뜻한다.

2. 이와 같은 경향은 개발정도가 아직 先進에 미치지 못하고 국가나 學父兄의 教育費 부담 능력이 미흡한 한국적 실정에서는 적당치 않고 浪費的이기도 하다.

3. 일반교양교육에 치중한 대학 4년과정을 이수한 졸업생이 사회에 진출했을 때, 專門的 學技의 미숙으로 갖가지 난점과 애로에 봉착하게 된다.

4. 大學院 과정이 교수진, 교육내용에서 극히 後進의 단계에 머물러 있는 현 상황에서는 大學, 學部課程의 專門化가 더욱 절실히 요구된다.

대체로 大學과 大學教育을 선발된 少數를 위한 고등교육기관으로 이해하려는 사람들이 보이는, 위와 같은 반응에는 그 나름의 근거가 있고 또 해방 후 오늘날까지 제대로 정립해 보지 못한 나라의 大學觀의 혼미에 대한 불안과 좌절이 도사리고 있다. 대학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이고 대학에 대한 정책을 수립할 때에는 다른 모든 고려보다 교육적 고려가 앞서야 한다는 것은 두 말할 여지가 없다. 그러나 대학의 문제는 교육의 문제임과 동시에 대학이 존재하고 서식하는 사회의 문제이다. 대학은 학문적인 탁월성(excellence)을 추구해야 하지만, 한편으로는 고등교육을 받기를 원하는 사람들에게 균등한 기회(equality)를 제공할 사회적 책임 또는 부담을 져야 한다. 우리가 교양교육을 위시한 대학교육을 생각하고 교육내용이나 과정을 설정할 때 이 두 가지를 아울러 고려해야 한다. 이것은 한국

만의 문제가 아니라 先進國의 대학들이 안고 있는 이렇다면 범세계적인 문제인 것이다. 위에서 본 부정적 반응은 결국 이 두 가지의 갈등, 또는 해소의 실마리를 찾을 수 있는 상호 모순에 대한 의식의 소산이라고 할 수 있다.

학문적 탁월성과 기회균등이라는 두가지를 적절한 수준에서 조화시킨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니다. 한편, 대학이 기회균등이라는 사회적 책임이나 부담에 효율적으로 대응하지 못할 때——현재의 한국 대학과 같이——대학은 스스로 실패를 찾을 겨를 없이 그 사회적 압력에 눌리고 그引力에 끌려가서 불안과 혼미와 좌절을 더해갈 수 밖에 없다.

대학교육, 특히 대학에서의 교양교육의 과정을 생각할 때, 전제로 삼아야 할 몇 가지가 있다고 생각한다. 그것을 순서없이 나열해 보면 아래와 같은 것이 될 것이다.

1. 대학은 고등학교(실업고등학교 포함)를 졸업하는 절대 다수 학생들이 대학진학을 희망한다는 사실과 해를 좇아 대학 인구가 증가할 것이 불가피하다는 사실을 있는 그대로 인정하고, 선발된 또는 선택된 少數(소위 엘리트)를 받아 심오한 학기를 전수하는 기관으로서 대학을 이해하는 전통적 대학관을 버려야 한다.

2. 高等學校까지의 교육내용, 변천하는 사회의 요구, 일반적 생활수준의 향상, 先進外國의 고등교육기관의 추세와 그들과의 연계관계, 무엇보다도 현대 사회가 요구하는 지식인의 자질 등, 복합적인 여러 요인 때문에 大學院進學者의 수효가 날로 격증하고 있고, 大學 학부는 점차 완성과정으로부터 上級學位取得과정으로의 준비단계로 변모하고 있다는 사실을 저시해야 한다.

3. 대학 학부과정을 專攻·完成과정으로 보고 細分된 각 분야의 專門的인 情報를 학부 4년 동안에 전수해야 한다는 생각은 이제 어리석은 것이 되고 말았다. 自然科學의 경우 그와 같은 생각이 한낱 白日夢일 수 밖에 없다는 것은 상식이지만 넓은 脈絡 속에서 추구해야 하는 人文, 社會科學의 경우에도 역시 필요한 모든——거의 모든——지식과 정보를 학부 4년 동안에 습득해야 한다면, 교양교육으로 한해를 버리는 것이 부질없는 것은 물론 高等學校 과정부터 專攻을

시작해도 오히려 부족할 정도이다. 다시 말하면 現代의 지식인, 기능인이 갖추어야 할 전문지식과 정보는 학부 4년은 고사하고 大學院課程에서조차 두루 습득할 수 없는 것이다. 分野에 따라서는 出版되자마자 古物이 되고 마는 辭典과 같이 습득하기가 무섭게 낡고 쓸모없는 지식이 되어 버리는 경우가 허다하다. 따라서 大學의 專門性은 학부과정에서는 극히 제한적으로 이해해야 할 것이다.

### Ⅲ.

1972년에 고려대학교의 教育 및 敎科審議委員會가 마련한 보고서에 교양과정 커리큘럼을 편성하는데 시사하는 바가 큰 대목이 실려 있다. 이것은 그 위원회가 들린 설문에 대한 교육관계자들의 견해를 요약한 것이다.

1. 현대 조직 사회에서 야기되는 科學專門 위주로 말미암은 非人間化를 극복할 수 있는 바탕을 부여하여야 한다.

2. 종전 지식인으로서 갖추어야 할 指導性을 배양시켜야 한다.

3. 넓고 큰 人間育成의 기틀을 마련해 주어야 한다. 즉 이는 人間精神을 自由化시키는 교육을 말하는데 그것은 人間을 무지와 편견 및 독단에서 해방시키는 學問이다. 따라서 專門의 技術을 구사할 수 있는 正當한 判斷力을 배양하는 기본적인 資質을 습득시켜야 한다.

위의 세 가지를 한 마디로 요약하면, 대학의 교양교육이 “성숙한 지식인”의 양성에 이바지해야 한다는 것이 될 것이다. 그 보고서가 마련된 후 實驗大學 개혁기를 거쳐 오늘날에 이르는 10년 동안에 대학의 교양교육에 “성숙한 지식인”

의 배출을 기대하는 풍조가 학생모집방법이 系列別에서 學科別로 환원되었음에도 불구하고 더욱 결실해졌다고 생각된다. 교양교육이 專攻의 준비로서의 지식, 정보, 도구 전수에 그치지 않고, 專攻을 시작할 수 있는 知的 基礎와 함께 進전한 지식인으로서의 品性을 기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는 생각은 교양교육을 진지하게 그리고 긍정적으로 생각해 본 사람이면 누구나 품어 볼 생각일 것이다. 한국의 대학생이 대학과정에서 갖추어야 할 지식인으로서의 자질과 品性을 정의한다는 것은 극히 어려운 일이다. 그러나 그에 대한 잠정적이거나 어떤 정의의 시도하지 않고 교양교육의 과정을 설정할 순 없을 것이다. 여기서, 앞에서 든 보고서가 제공하고 있는 California State College의 예가 참고가 된다. 그것을 토대로 옮겨 보던 아래와 같다.

이 대학에서는 졸업에 소요되는 총학점 128점 중 60학점을 일반교양교육에 배치고 있다.

현행 140학점 중에서 약 30%에 해당하는 40여 학점으로, 우선 法定, 政策과목을 이수하고, 나머지로 바람직한 교양교육을 실시하게 할 때 슬기롭게 敎科目이나 학점 배당을 한다는 것은 교양교육의 목표나 내용을 어떻게 설정하든지 용이한 일은 아니다. 더우기, 職業教育의 성격이 두드러지는 法·商·醫·工·農系의 경우, 교양교육의 필요성을 적극적으로 인식하는 경우에도 전공(필수)과목의 압력에 밀려 40학점마저 침범당하기 일수이다. 그러나 교양교육의 필요가 그와 같은 系列의 학생들에게 더욱 결실하다는 것을 부인할 수 없는 일이다. 따라서 모든 系列, 分野의 학생들에게 California State College와 같이 졸업학점의 반인 70학점 정도를 교양교육에 할애하는 것이 불가능하다면, 적어도 40%

영역	학 점	내 용
1. 의사소통 技能	18	국어, 외국어, 스피치, 논리, 수학
2. 과학적 技能	8	생물, 화학, 물리
3. 자신의 이해	21	사회, 과학, 문화사, 인류학, 심리학, 지리, 체육, 경제
4. 鑑 賞	10	문학, 음악, 미술
5. 生의 의미	3	역학
계	60	

인 50여학점이 교양교육에 바쳐지는 것이 바람직하다. 여기에는 學科(또는 系列)별 專攻에 필요한 기초과목(문학전공자에게 문학개론이나 세계문학, 기계학 전공자에게 응용수학이나 물리학 따위)은 포함되지 않는다.

교양교육의 목적과 그 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 개설·제공되어야 하는 교과목을 어떻게 정리할 것인가? 교양교육의 목적을 성숙한 지식인으로 발전할 수 있는 知性과 品性을 닦는데에 두기로 한다면, 다음과 같은 큰 대목으로 나누어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자신이 사는 고장을 중심으로 세계를 보는 안목을 길러 주는 것, 두번째는 자신을 올바르게 인식하는 것, 세번째는 正誤와 善惡을 판별하는 능력을 길러 주는 것, 그리고 네번째로 자신의 감정과 의사를 정확하게 표현할 수 있는(주로 言語驅使) 능력을 길러 주는 것으로 大別할 수 있을 것이다. 이 네가지 요구를 충족시켜 주는 교과목은 여러가지로 나열할 수 있을 것이다. 다만, 나열방식이 학문분야 명칭이 아니고, 주제나 문제중심으로 나열되는 것이 바람직하다는 것은 서울大學校에서 시도해 본 방식이나, 고려대학에서 일부 교양과목을 교수해 본 방식의 효과로 미루어 자명하다고 생각된다. 교양교육의 과목이 주제나, 문제중심으로 나열되고 교수될 때 얻을 수 있는 가장 큰 수확은 학생들의 요구와 취향, 또는 지식수준을 감안해서 교과내용을 융통성있게 조직할 수 있고, 주제나 문제를 제시할 때 불가피하게 인접학문분야와의 관련을 유지하면서 종합·통합된 내용을 제공할 수 있다는 것이다. 서로 맥락의 연결이 단절된 단편적 지식이나 정보는 성숙한 지식인을 기르는데 도움을 줄 수가 없다. 다만 그와 같은 통합과목(integrated courses)을 조직하고 교수하는 데에는 갖가지 어려움이 있고, 종래의 고식적인 강의 위주의 교수법으로는 감당하기 어렵다는 난점이 있다. 그러나 이것은 가르치는 쪽의 애로이며 난점이지만 배우는 쪽의 문제는 아니다.

#### IV.

교양교육은 물론 현대의 대학학부과정에서 어느 편협한 專攻分野에 지나치게 치우침이 없는 “whole man”을 길러 내는데 그 목적을 두어야 한다고 하면, 一見 지식이 극단적으로 細分化되고 專門化되어 가는 현대의 추세와 逆行하는 것 같이 보일 수 있다. 그러나 오늘날의 지식과 정보가 극단적으로 細分化, 專門化되어 가기 때문에 바로 대학과 대학의 교양과정은 일반적으로 통합된 안목과 견식과 品性을 길러 주어야 하는 것이다. 세계 2차대전을 겪고 난 다음, 지식의 細分, 專門化의 추세가 두드러지게 나타나기 시작했을 때, C. P. 스노우의 “두 개의 文化(또는 教養)論”이 나온 것은 시사하는 바가 크다. 대학입시 준비과정(G.C.E.)에서부터 전공을 시작하고, 대학에 진학해서는 교양이나 일반교육을 거들떠 보지 않았던 영국의 대학, 특히 전후의 대학이 교양교육의 필요성과 극복하기 시작한 것 또한 의미있는 발전이다. 전후 미국에서의 교양, 일반교육과정의 변천, 발전의 자취를 더듬어 보면 교양교육과정의 설정이나 교수법의 개발에 대학마다 혼신의 노력을 기울여 온 것을 알 수 있다. 때로 교양, 일반교육이 너무 산만해져서 교양교육도 부실해지고 專門敎育 또한 그 質을 거두지 못한다는 學内外의 비판이 없지 않았지만, 가령 하버드대학의 경우를 볼 때 1946년 同大學 위원회가 “自由社會에 있어서의 一般敎育”(1946)을 낸 후 오늘에 이르기까지 여러 차례 교양교육의 목표와 내용을 개발해 오는 동안 줄곧 교양교육의 중요성을 강조해 왔다는 것이 분명한 사실이다.

교양교육의 이상은 르네상스의 이상이라고 할 수 있다. 르네상스인은 모두가 “whole man”들이었다. 이제 우리는 제2의 르네상스에 살고 있다. 따라서, 우리의 고등교육, 특히 교양과정은 “whole man”의 양성이 이바지할 수 있는 교과과정을 연구하고 제공해야 할 것이다. \*